

# 살아있는 믿음

## 나사렛사람들이 믿는 것

오랜 기간 동안 존속되는 조직체들을 보면 목적과 신조와 가치를 깊이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나사렛교회도 마찬가지다. 나사렛교회는 성서적 성결의 메시지를 전파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래서 나사렛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성결의 교회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사명은 모든 민족들로부터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을 만들어 내는 일에 있다.

나사렛교회의 현재와 미래의 삶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의 동참에 의해 정의된다. 따라서 나사렛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의 한 표출이면서, 동시에 믿고 있는 신조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조직체이기도 하다.

이제 나사렛교회도 새 천년 속으로 이행하면서 이때까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념해온 나름대로의 특성들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의 고귀한 보물이라 할 수 있는 독특한 사명, 부르심, 신조, 가치관들을 다가오는 세대에게 기쁘게 선물로 제공하고자 한다.

여기에 기록된 우리의 핵심 가치관들이 앞에 놓인 시대의 명암을 뚫고 자신들의 길을 개척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계속 안내의 등불 구실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 1.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전체 보편교회의 일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그리스도교 신앙의 역사적 삼위일체 신조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다른 모든 진정한 신자들과 뜻을 같이한다. 우리는 우리의 웨슬레주의-성결 유산(遺産)의 가치를 천명하며 그것이, 성서, 이성, 전통, 경험에 입각한 믿음을 바로 이해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 2. 우리는 성결의 사람들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결의 삶으로 소명하신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혜의 두 번째 역사’(役事)를 이루려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이 역사는 “온전성결”(entire sanctification)과 “성령세례” 또는 유사한 여러 다른 용어로 표현될 수 있다. 이 은혜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고,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게 된다. 신자들의 삶 속의 성결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분명한 이해의 길이다.

### 3. 우리는 사명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온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라는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심에 부응하고자 한다(고후 6:1). 우리의 사명은, (가) 경배에서 시작하여 (나) 전도와 사랑의 실천으로 세상을 섬기며 (다) 제자훈련을 통하여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으로 나아가도록 독려하고 (라) 그리스도인 고등교육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봉사에 적합한 선남선녀를 준비시키는 일 등을 포함한다.

## 1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모든 신자들과 연합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사랑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죄사함과 관계의 회복을 베풀어주신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인간 상호간의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역사적 삼위일체 신조를 천명하는데 있어서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과 뜻을 같이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웨슬레주의-성결 전통 유산의 가치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우리는 성경을 이성, 전통, 경험에 의해 확인되는 영적 진리의 주 원천으로서 본다.

우리는 다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찬양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되듯이 하나님이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의 주님이시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모든 세상에 죄 사함과 화목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베푸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용서하고 피차간에 화목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그 몸의 일치성을 밝히 드러낸다.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우리는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를 소유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치를 공언하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엡 4:5, 3).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주님이시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일 뿐 아니라 거룩하기도 하다. 교회는 부분으로서도 거룩하고 전체로서도 거룩해야 하며, 그 머리가 거룩한 것처럼 지체들도 거룩해야 한다.

교회는 존재로서 거룩하며 동시에 당위로서 거룩하도록 부르심을 입었다. 교회는 우리를 위하여 의와 성결이 되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교회는 이 세계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도록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함께 교회 된 우리의 삶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구현해야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결이 은사이면서 동시에 소명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님이시다. 이 때문에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할 뿐 아니라 보편적이며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필수 신조를 수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시킨다. 우리는 모든 시대에 모든 곳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였던 사도적 신앙을 인정한다. 우리는 요한 웨슬레의 보편 정신의 개념을 받아들여 성경의 중요한 핵심을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하며, 구원에 필수적이지 않은 사안들에 있어 우리와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관용의 자세를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서의 주님이시다. 이 때문에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일 뿐 아니라 사도적이기도 하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며 계속하여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한다. 교회는 특히 교회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준이 되는 성서를 주목한다. 성서에 대해 예수가 주가 되신다는 것은, 성서가 예수에 대해 증언할 때 성령의 증거를 통해 우리가 성서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증하고 교정하기 위하여, 우리는 고대의 신경들과 성서를 충실하게 설명해 온 그리스도교의 기타 전통의 주장들을 존중하여 그에 귀 기울인다. 또한 우리는 회개, 믿음, 확신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목소리의 인도를 받아 성서를 이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우리의 성서 이해가 바로 되었는가를 검증한다.

특별히 우리는 웨슬레주의-성결 전통 속에서 수용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결에 대해 증언하도록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원리를 확언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이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라는 점을 공언한다. 그러나 우리의 특별한 소명은, 세계와 교회 앞에서 성결이 핵심이라는 점을 붙들며 보전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부의 거룩한 사랑의 충만함 속에서 살도록 독려하는데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웨슬레주의-성결에 입각하여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그에 따른 주요 교의들인 하나님의 선행의 은총과 은혜의 수단들, 회개, 믿음, 중생, 칭의, 확신,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훈련, 사랑의 완전 등의 가르침에 충실하고자 노력한다.

입었다. 우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원리를 확언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이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라는 점을 공언한다. 그러나 우리의 특별한 소명은, 세계와 교회 앞에서 성결이 핵심이라는 점을 붙들며 보전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부의 거룩한 사랑의 충만함 속에서 살도록 독려하는데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웨슬레주의-성결에 입각하여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그에 따른 주요 교의들인 하나님의 선행의 은총과 은혜의 수단들, 회개, 믿음, 중생, 칭의, 확신,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훈련, 사랑의 완전 등의 가르침에 충실하고자 노력한다.

시간, 감사와 찬양, 순종의 행위를 통해 표현될 수 있다. 복음전도, 이웃을 향한 사랑의 봉사, 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 도덕적 고결함의 유지 등도 모두 불꽃같은 성결의 우리 하나님께 올리는 경배의 행위들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경배가 우리의 생활 양식이 되면서 일상적 삶의 과제 수행조차도 경배의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성례전(聖禮典)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한 분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경배하는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예수께서는 복음서, 특히 산상수훈에서 발견되는 그분의 삶, 희생,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성결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우리는 성결의 사람들로써 모든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 예수 닮기를 추구한다.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해 그분께 경배하는 신자들이 그리스도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로 능력을 주신다. 우리는 바로 이것이 성결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은사와 책임을 주셨다. 우리는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우리 자신의 길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사 53:6).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이다(엡 2:1).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려면, 없는 것을 있게끔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구속 행위를 통하여 우리를 은혜로 새롭게 창조하셔야만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적 신인(神人)이신 그분의 독생자 나사렛의 예수의 성육신을 통하여 독특하게 우리의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믿는다. 예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하여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신자의 삶 속에서의 성결이 순간의 전기(轉機)적 체험과 일생의 과정, 양자 모두의 결과라는 것을 믿는다. 중생이 있고 나서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는 은혜로 우리가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그분께 헌신하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세례라고 불리기도 하는 신성한 온전성결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원죄로부

터 정결케 하시며 그분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안에 계속 머물게끔 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에 있어 완전케 하시며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드시고 그에 따라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자신의 거룩한 사랑의 성품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엡 4:24) 입을 수 있게 해 주신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와 같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성결의 역사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는 했지만 아직 영적으로 완성에 도달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의 일생의 목표는 말과 생각과 행실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계속적인 복종과 순종 그리고 믿음에 의해 우리가 “저와(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믿는다(고후 3:18).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되는 경배의 삶을 살면서 이런 과정에 더 깊이 참여하게 된다. 여기에는 지역 교회의 영적인 훈련과 교제와 책임을 수용하는 일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정 회중을 이루는 신자들의 결집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를 이루고자 노력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사랑, 순결, 능력, 자비심의 은사를 받아들인다.

우리는 성결의 사람들로서 역사적-교회사적 진공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신약성경 및 초대교회의 가르침과 뜻을 같이 한다. 우리의 믿음의 신조들은 우리를 분명하게 고전적 그리스도교의 전통에 위치시킨다. 우리는 거저 주시는 은혜(예수께서 모두를 위해 돌아가셨다)와 인간의 자유(하나님과 구원을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신 능력)를 믿는 알미니우스의 전통에서 있다. 또한 우리는 18세기의 웨슬레 부흥운동과 19-20세기의 성결 부흥운동에서 우리의 교회적 유산을 추적할 수 있다.

수세기를 걸쳐 성결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 “대단한 집착”을 보여왔다. 우리는 예수께 경배한다! 우리는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는 예수를 생각한다! 우리는 예수



를 이야기한다! 우리는 예수를 살아간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성결의 본질이며 성결의 총만이다. 이것이 바로 성결의 사람들의 특징이다.

### 3 우리는 사명의 사람들이다

#### 3a. 경배의 사명

세계 속에 존재하는 교회의 사명은 예배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알게 되는 때는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다. 찬양하고 성경이 봉독되는 것을 들으며, 십일조와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며, 세례를 주고 성찬식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된다. 세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역사가 주로 예배하는 회중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교제 속에 계속 새로운 구성원들을 받아들이며 또한 예배하는 새 회중을 조직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점도 알게 된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예배는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께 영광을 드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숭앙(崇仰)의 행위이다. 예배가 이루어지는 주 상황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지역 교회로서, 그들은 자아 중심이나 자기 영화(榮華)를 지양하고 자아 복종과 자아 헌신 속에서 모이도록 되어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의 섬김 속에서 교회를 이루어낸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 특권이며 책임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선포와 기념을 통해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집회이다.

예배를 통한 지역 교회의 존재는 우리의 정체감의 핵심을 이룬다. 나사렛교회는 근본적으로 지역의 예배드리는 회중들이며, 우리의 사명을 달성하는 것도 지역 회중 안에서 회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교회의 사명은 예배 속에서 그 의미와 방향을 찾는다. 우리는 말씀의 선포, 성례의 집전, 성경 봉독, 찬송, 공중기도, 십일조와 헌금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구속의 역사에 있어 하나님과 더불어 동참한다는 것의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도 바로 예배 속에서이다.

예배의 사명은 우리 교회의 근본이다. 나사렛 교회가 본질적으로 지역의 경배하는 회중들이기 때문에 우리

의 예배 사명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새로운 회중을 출범시키는 일에 혼신을 다하게 한다.

### 3b. 자선(慈善)과 전도의 사명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들로서 우리는 길 잃은 영혼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나누며 가난하고 상심한 사람들에게 그분의 자비심을 베풀어준다. 최고계명과 지상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도, 자선, 정의실현에 동참하도록 독려한다. 이를 목적으로 하여 우리는, 사람들을 신앙에 초대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불의에 저항하고 압제받는 사람들 편에 서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자원을 보호,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교제권에 포함시키는 일에 혼신을 다한다.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성경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다(고후 5:16-21). 교회는 복음전도, 자선, 정의구현을 통해 이러한 사랑과 화목의 사역에 하나님과 더불어 동참하도록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는다.

지상명령과 최고계명은 둘 다 우리의 사명을 이해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것들이다. 이것들은 한 사명의 두 표현이며 한 복음 메시지의 두 차원이다.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마 22:37, 39) 지시하신 예수께서는 또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마 28:19-20).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가치가 부여되어 있듯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사명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며 존중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평화와 정의와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돌보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된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며 무력하게 만드는 사회 체제와 정책에

의 예배 사명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새로운 회중을 출범시키는 일에 혼신을 다하게 한다.

### 3b. 자선(慈善)과 전도의 사명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들로서 우리는 길 잃은 영혼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나누며 가난하고 상심한 사람들에게 그분의 자비심을 베풀어준다. 최고계명과 지상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도, 자선, 정의실현에 동참하도록 독려한다. 이를 목적으로 하여 우리는, 사람들을 신앙에 초대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불의에 저항하고 압제받는 사람들 편에 서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자원을 보호,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교제권에 포함시키는 일에 혼신을 다한다.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성경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다(고후 5:16-21). 교회는 복음전도, 자선, 정의구현을 통해 이러한 사랑과 화목의 사역에 하나님과 더불어 동참하도록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는다.

지상명령과 최고계명은 둘 다 우리의 사명을 이해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것들이다. 이것들은 한 사명의 두 표현이며 한 복음 메시지의 두 차원이다.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마 22:37, 39) 지시하신 예수께서는 또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마 28:19-20).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가치가 부여되어 있듯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사명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며 존중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평화와 정의와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돌보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된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며 무력하게 만드는 사회 체제와 정책에

저항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다.

교회의 사명은 전인격에 적용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육과 혼과 영의 전인격으로서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자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복음전도, 자선, 정의 구현의 사명은 통합된 하나의 사명으로서 사람들의 신체적, 정서적, 영적 필요에 모두 관계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사명은 모든 인류에게 확대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은 우리의 특권이며 책임이다.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건 개인적인 일대일 전도를 통해서건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초대하는데 우리의 열정이 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모든 인류 위에 임하셨기 때문에 (행 2) 세상 속에서 교회의 사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교회를 건설해 가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동참하도록 성령으로 권능을 입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세상 속에서 감당하는 우리의 일은 희망과 낙관의 정신에 입각한다. 이 일은 인간 관심의 표현이나 인간 노력 이상의 것이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응답이다. 이 일은 하나님 나라의 화목의 사명에 하나님과 더불어 동참하는 것이다. 그것은 교회가 복음전도, 자선, 정의실현을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실하게 증거하고 표현하는 일이다. 그것은 죄로 망가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라 할 수 있다.

### 3c. 제자도의 사명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 제자도에 초청하는 일에 헌신한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이해와 서로간의 관계 그리고 하나

님과의 관계에 있어 성장하도록 장려하는 수단들(주일학교, 성경공부, 소집단 활동 등)을 제공하는 일에 혼신을 다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 하나님께 순종케 하고 믿음의 훈련에 바치는 일이 제자도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상호간의 지원, 그리스도인의 교제, 사랑의 공동 책임을 통하여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을 믿는다.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다. “상호간의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에게 주셨다.”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는 하나의 생활양식이다. 제자훈련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도록 허락하셨는가를 배우는 과정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안에서, 믿음의 훈련에의 복종 속에서, 그리고 상호간의 책임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면서, 훈련된 삶의 참된 기쁨과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제자훈련은 단순히 규칙과 규정에 복종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다. 제자훈련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점차적으로 성숙하도록 이끄시는 수단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 가는 것은 바로 제자훈련을 통해서이다. 제자훈련의 궁극적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변화되는데 있다(고후 3:18).

그리스도인들은 제자훈련의 여정 중 갈증의 계곡을 지날 때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함으로써 회복의 샘물을 발견한다. 말씀의 씻음으로 활력을 입어, 말씀에 잠김으로써 정련되고, 말씀의 진리를 깊이 들이 마시면서 제자들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롬 12:2)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며 놀라워한다.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인의 길이 그들 앞에 대로처럼 열린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해져서 외부의 인간적, 문화적 가치에 침몰되지 않고 오히려 극복하는 생활의 양식으로 진입하게 된다. 말씀의 샘물로 새 힘을 얻는 제자들은 자아를 극복하는 봉사에 자신들의 삶을 희생적으로 드린다.

우리는 선남선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하는 일에 있어서 고전적인 영성 훈련에 생명을 부여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기도와 금식, 예배와 연구, 고독과 봉사와 간결한 생활 등을 통한 훈련은 신자의



삶의 자연적 표현이면서 또한 의도적 헌신의 노력이기도 하다.

제자도는 상호간의 지원과 사랑의 책임을 요구한다. 우리 중에서 혼자만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완속에 도달하는 영성 훈련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는, 주일학교 반, 제자훈련 그룹, 성경공부 그룹, 기도회, 상호 책임 그룹, 또는 우리의 영성과 성숙에 필요한 개인지도와 같은 각종 수단들을 통하여 상호간의 지원을 독려해야 한다는 것을 믿는다. 웨슬레의 구역 모임에서 상호간 책임의 구실이 중요했던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상호 역할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회중들 가운데서도 적용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 3d. 고등교육의 사명

우리는, 선남선녀들을 그리스도인의 봉사의 삶을 위해 구비시키는 그리스도인 교육에 헌신한다. 신학대학원, 성경대학 및 각급 대학교에서 우리는, 교회와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의 소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식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개발하며 지도자들을 구비시키는 일에 노력을 다한다.

그리스도인의 고등교육은 나사렛교회 사명의 중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나사렛교회의 초창기에 그리스도인 고등교육 기관들은 웨슬레주의-성결 부흥을 전세계적으로 전파하는 일에 있어 선남선녀들의 리더십을 함양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인 봉사에 준비시킬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그리스도인 고등교육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은 신학대학원, 성경학교, 각급 대학교들로 구성된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냈다.

그리스도인 고등교육에 대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면 그 이해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학문적 자원의 개발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지식의 적용에 있어서 좋은 청지기가 되어야만 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개방적이고 정직한

지식과 진리의 추구를 우리의 그리스도교 신앙의 총체성에 결합시키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한다. 그리스도인 고등교육은 우리의 마음의 청지기 정신의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활동의 장이다. 그리스도인 고등교육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에 대한 진리와 지식의 발견과 토론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활동의 장이 될 것을 목적으로 있다.

그리스도인의 고등교육에서 믿음과 학문이 함께 개발되면서, 믿음은 격리되어 독선에 빠지지 않고 지식과 아름다운 통합을 이루게 된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관계되는 모든 부분의 사고 및 삶과 더불어 전인격이 개발된다. 그리스도인의 품성 개발과 교회와 세계 속에서의 봉사를 위한 그리스도인 리더십을 구비시키는 일은 하나님, 인간, 세계에 대한 학문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인 고등교육이 전인격의 형성에 드리는 노력은 교회와 세계 속에서 사명의 리더십에 적합한 그리스도인 선남선녀들을 개발하는데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리스도를 닮도록 부르심을 입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인으로 보냄을 받은 구속받은 백성들로서 우리는 인류를 구속하는 역사에 하나님과 더불어 동참한다. 그리스도인의 고등교육은 우리가 - 광범위한 지식을 공급하는 - 그러한 사명의 사람들이 되는데 큰 기여를 하며 우리가 다양한 직업으로 하나님께 효과적인 봉사를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충실하게 동참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종 된 지도자들로서 필요한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선남선녀들을 길러내는 일이 꼭 필요하다.

우리가 섬기기 위해 소명을 입은 세계는 점점 더 긴밀하게 상호 연결이 되고 있으며 갈수록 더 깊고 복잡하게 얽혀진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현재와 미래의 세대 속에서 진행되어 가면서 우리가 충실하게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고 교회 건설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효과적인 동참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명력 있는 혼신의 노력을 계속하여 그리스도인 고등교육에 기울이는 일이 꼭 필요할 것이다.



나사렛교회는 세계사가 20세기로 전환할 즈음에 태어났다! 피 에프 브리지(P. F. Bresee)를 비롯하여 이에 동참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세상을 향해 웨슬레주의-성결의 전통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자신들을 불러 일으켰다고 깊이 확신했다. 이 교단을 향한 뚜렷한 섭리의 자국들이 여기 있다. 발아하는 운동으로 시작해서 현재 나사렛교회는 정회원이 1,300만을 넘어서고 있고 전 세계의 119개 국가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이제 21세기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이 교단의 장래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다! 많은 이들이 믿기에 우리는 20세기보다는 21세기를 위하여 불러일으킴을 받았다고 본다. 우리는 탈-현대의 세계에 주요 기여를 하도록 위치 지워져 있다. 이러한 확신은 철저한 은혜의 낙관론을 특징으로 하는 우리의 웨슬레주의-성결의 유산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근본에서부터 영구적인 변화를 입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이 희망의 메시지에 대해 억누르지 못할 확신을 가지고 있다.

피 에프 브리지는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했다. “아침에는 결코 해가 지지 않습니다.” 나사렛교회는 아직도 아침이며 그래서 전 세계에 걸쳐 우리 교단에는 결코 해가 지지 않는다. 우리는 성결의 메시지로 21세기의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해 과격할 정도로 낙관적이다! 우리는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 닮은 제자들로 만드는 일에 있어서, 분명한 비전과 온전한 헌신 그리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세기가 우리에게 최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우리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본다.